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입다- 믿음의 사람" [사사기 11:29-4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29 이에 여호와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뎀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 입다가 미스베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37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 하겠나이다 38 이르되 가라하고 두 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40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궁금해 합니다. 이 질문에 간단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드려질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입다는 방금 언약 역사에 훌륭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그래도 그는 여전히 희생 서약을 했습니다...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사사기 11:31b) 주님께 서약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지침: 레위기 27장, 민수기 30장, 신명기 23:21-25. 서약은 자발적이었지만, 한 번 서약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2)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저는** 제 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럼 누가 나올까요? 히브리어는 짧은 네 단어로 이 드라마를 포착합니다. "보시오! 그의 딸이 그에게로 나옵니다!" 외동자식. 입다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입다가 괴로워하며 외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사기 11:35). 그의 딸이 대답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사사기 11:36).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 간통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으며 살았을까요?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고 듣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매일의 삶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구속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즉, 레위기 27장? 영적 희생 -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하지만 레위기 27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순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신으로 지내는 데 2개월 동안 애도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작별 인사를 위해 애곡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39절은 어떨까요? "그는 자기가 한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 많은 서원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좋은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양을 통해 식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자백하지만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합니다.